

순천시 '로봇 공모' 2연속 3관왕 달성

지자체 최초...사업비 25억 확보 돌봄 로봇 8월께 순천 전역 확대 소외자 없는 로봇 동행 도시 박차

순천시가 지자체 최초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로봇 공모사업 3관왕을 달성했다.

순천시는 올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로봇 창의교육 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25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로봇 공모사업 선정에 힘입어 지자체 주도형 로봇 사업의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로봇 창의인재 육성사업을 실시하고 발달장애인의 일상 자립을 돕기 위한 돌봄 로봇이 8월께 순천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첨단 로봇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로봇교육과학관은 9월 순천만잡월드 1층 284.27㎡ 규모로 조성된다.

또 시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로봇 축제의 장도 열릴 예정이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로봇 캠프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로봇 축제, 로봇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회 등이 기획됐다.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로봇을 체험하고 즐기며 불거리는 제과물 예정이다.

앞서 순천시의 로봇 사업은 2022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융합비즈니스 지원사업'에 처음 선



순천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가 돌봄로봇을 조작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정되면서 시작했다.

국비 포함 총 8000만원을 확보해 발달장애인과 중증자를 위한 정서 지원 사업과 창의교육, 복지 로봇생태 조성 세미나, 로봇 축제를 진행했다. 로봇의 필요성을 시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시는 지난해 '사회적약자편의지원사업', '로봇 융합비즈니스 지원사업', '로봇 창의교육 사업' 등 세 가지 분야에서 3관왕을 달성한 바 있다. 국비를

포함해 3억원의 사업비를 받았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첨단산업 도시를 조성하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로봇과 항공 우주, 방산, 모빌리티, 마그네슘 경량화 등과 관련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AI와 로봇을 접목한 다양한 시민 편의 시책으로 누구도 로봇으로 소외되지 않는 로봇 동행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형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 수립한다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광양시가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9년까지 장애인복지 종합 5개년 계획 수립에 나섰다.

광양시는 최근 장애인복지 시설 및 단체, 특수학교 등 장애인 관련 분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착수보고회에서 전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 광양시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비전과 방향 등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보고회는 장애인 정책 중장기 비전과 목표, 정책과제 및 추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장애인복지 향상 ▲권익 보호와 사회참여 강화 ▲무장애도

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항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강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방안 등 전반적인 사항이 논의됐다.

연구용역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알아보기 위해 장애인과 가족, 장애인복지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 욕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등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맞춤형 장애인복지 정책을 추진한다.

양준석 광양시 시민복지국장은 "광양시만의 특색을 잘 반영하고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광양형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시체육회 임직원들이 지역 근린공원과 등산로 등에 설치할 대형 훌라후프를 직접 만들고 있다.

민간 주도 발전사업 '구례신활력네트워크 미래포럼' 창립

지역민 53명 참여 창립총회

구례지역 민간 주도형 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례신활력네트워크 미래포럼'이 지난 19일 출범했다.

구례군 신활력플러스추진단은 이날 광의면 참새미골 활성화센터에서 지역민 53명이 모인 가운데 '구례신활력네트워크 미래포럼' (이하 포럼) 창립총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 포럼은 신활력플러스추진단 회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창립총회에서는 모든 의사 결정을 진행할 운영 대의원 협의체를 꾸릴 8명의 운영 대의원을 뽑았다.

이날 행사는 '지역사회의 활기찬 미래 설계와 준비'를 주제로 진행했다.

최두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중앙심의위원은 기초연설을 하며 국가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지식과 정보의 공유 그리고 연대를 통한 상호 협력 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사업, 2024년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시·군 특화지원사업, 청년 농업인 육성지원사업 등을 설명했다. 이어 김영순 나주 영농조합법인 '아름답



구례 민간 주도형 발전사업을 추진할 '구례신활력네트워크 미래포럼'이 지난 19일 연 창립총회에서 참석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게그린베' 대표가 중소기업 성공 사례, 고객 유치 방법 등을 소개했다.

조남훈 구례군 신활력플러스추진단장은 "수요자 중심, 민간 주도형 사업 추진 기반을 만들기 위해 포럼 창립을 제안했다"며 "미래포럼 운영에 대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례신활력네트워크 미래포럼은 매달 셋째 주 수요일 열린다. 구례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010-7401-782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여수시체육회 훌라후프 200여개 26곳 비치

여수시체육회는 최근 대형 훌라후프 200여 개를 만들어 26곳에 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체육회 임직원 30여 명은 두 차례에 걸쳐 대형 훌라후프 200여 개를 직접 만들었다.

훌라후프 100개는 웅천천수공원, 돌산공원, 자산공원, 이순신공원, 용기공원, 거북선공원, 여문공원, 웅천장도공원, 성산공원, 울촌장도공원, 미평공원, 망마경기장 등 지역 근린공원 12곳에 배치됐다.

나머지 100여 개는 미평산리유양, 고락산 등산로, 여천동 선원 트레킹로, 무선산 등산로, 정소년수련관, 안산공원, 장도공원, 청솔 1차공원, 돌산

공원, 우두리 제5공원, 강남정 공원, 우두리 제6공원, 봉산공원, 청소년수련관 등에 추가 배치했다.

이번 훌라후프 지원사업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여수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여수시체육회는 배드민턴 등 생활 체육 보급과 체육 인재육성 장학금 조성에 힘쓰고 있다.

명경식 여수시체육회장은 "생활체육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뿐만 아니라 생활에 활력을 기르는 순기능 역할을 한다"며 "이번에 설치한 대형 훌라후프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활력 있는 삶을 영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고흥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3억 유치

국토부 공모...보건진료소 6곳 개선

고흥군이 국토부가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 결과 2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고흥군에 따르면 그린리모델링사업은 노후로 인한 에너지 효율이 저하된 기존 건축물의 창호 단열, 냉난방 설비 등을 보수하는 사업이다. 오래된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거주 및 생활환경을 개선해 온실가스 감축이 목표다.

군은 공모 선정에 따라 풍양보건지소 등 보건진료소 6개소를 개선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노후된 보건진료소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희망 건축물 조사를 펼쳤으며 지난 4월 국토부 현지 조사가 이뤄졌다. 군은 국비 16억원, 군비 7억원 등 23억원을 투입해 보건진료소 6개소에 대해 올해 설계 및 준공을 목표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상담문의: 062-449-4446